

# 예비창업가의 개인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현철(No, Hyun-Churl)\*10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실업과 고용창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창업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1년간(’01~’11) 창업중소기업이 연평균 1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반해, 기존기업의 경우 폐업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평균 79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 2013). 또한, 카우프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지난 10년간의(’00~’09) 일자리창출 기여도는 창업기업이 기존기업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존기업 0.9%, 창업기업 2.6%) (Kauffman Report, 2012).

이처럼 창업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각국은 창업활성화 정책수립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새 정부 출범이후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련법과 규제를 완화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개인적 특성이외에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특징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경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부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동기 : 개인특질

동기(motivation)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창업에 대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창업동기라고 할 수 있다(반성식·배근우·장성희, 2013).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동기는 창업 뿐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Begley and Boyd, 1987).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 동기는 개인의 창업동기요인과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환경요인은 개인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의 창업동기 요인으로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질(trait)은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 중 하나이다(윤방섭, 2004). 창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질로 가장 많이 연구된 요인은 개인의 위험선호 성향, 성취욕구, 자기유능성, 자기효능감, 자율욕구 등이 있다(Sexton and Bowman 198

\*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042-476-6166, imja04@naver.com

5, Kreuger and Brazeal 1994, Greenberger and Sexton 1988). Reynolds(1992)는 창업의사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환경, 경력 환경,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의 창업과정은 창업자의 개인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Greenberger and Sexton, 1988). Gnyawali and Fogel(1994)은 창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를 개인의 창업동기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창업동기 가운데 대표적인 개인 특질인 자기효능감, 자율성, 위험감수성을 살펴보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자금, 기술, 경영지원, 물리적인 인프라로 구분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적 특질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작용을 하는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자기효능감

Shapero(1975)의 창업행동모형에서는 동기 부여된 개인의 창업행동을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경험과 예상된 미래의 장애물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준다(Gist and Mitchell, 1992). 또한 자기효능감은 선택, 노력, 인내에 영향을 준다(Cox, Muller and Moss, 2002).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숙달된 경험(Mastery Experiences), 롤모델(Modeling),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자신의 생리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Judgements of Their Own Physiological States)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다(Bandura, 1982; Wood and Bandura, 1989).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종욱, 2013).

창업 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Shapero(1981)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Krueger et al.(2000)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해 대처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성과가 좋은 사람은 대체로 자기효능감이 강한 경우가 많다(Kemelgor D'souza, Henley 2011).

### 2) 자율성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자율성(Feldman and Bolino, 2000)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재량과 독립성, 자유 등을 자율성이라 볼 수 있다(Hackman and Oldman, 1980). 자율성은 작업자의 직무동기와 창의적인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창의적인 직무를 위한 핵심적인 특성이다(Smith, Kot and Leat, 2003).

이러한 자율성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 3)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등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Koh, 1996). 위험감수성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Brockhaus, 1980).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히 대처하는 정도인 위험감수성의 경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적절한 위험감수성향을 가진다(McClelland, 1961).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보다 편안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Sitkin and Weingart, 1995).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위험감수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상이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 Sexton and Bowman(1985)은 위험감수성을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 기회를 획득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Slevin and Covin(1990)은 예측가능한 수익률을 가진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용기있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정의하였다. Herbert and Link(1982)는 수익창출을 위해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과 예견력을 가진 사람을 기업가라고 정의해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감수성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생활 보다 창업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Gist and Mitchell, 1992),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벤처기업가가 더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Begley and Boyd, 1987).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향과 재무성과간의 일관된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편, 창업자는 불확실성을 심각한 위협이며 동시에 흥미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asse, 1982), 창업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강한 것으로 연구되었다(Sexton and Bowman, 1985). 창업은 불확실하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감수성은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특성이다(Timmons and Spinelli, 2007).

## 2. 창업동기 : 환경적 동기(정부정책)

창업의지와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경영, 투자자와의 연결 등 창업의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최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남정민·전병준·박정우, 2013).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창업인큐베이션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단계별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창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남정민·전병준·박정우, 2013).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벤처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장우·이성훈 2004).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창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분야에서 정부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는 제도 시행에 비해 많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들이 조금씩 시행되고 있다.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실행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방섭, 2004).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는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의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조절작용 후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송종호, 2011)에 의하면, 학력, 창업분야, 창업동기,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성공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성공확신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는 주로 창업자금, 창업기술, 경영·마케팅·판로·법률과 같은 경영지원서비스, 정부규제, 창업교육, 인력지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공간 제공과 같은 창업인프라로 구분될 수 있다.

### 1) 창업자금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이 자금부족이며, 정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제도 가운데 1순위가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조달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지원인 창업지원 자금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 사업화 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재창업자금 등으로 제1금융권의 융자지원,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 지원하고 있다.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성공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송중호, 2011).

## 2) 기술

창업 중소기업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인력, 정보수집 등의 문제로 기술지식 집약적인 경영구조를 갖기 어렵다.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은 R&D기회를 받은 우수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 3) 경영지원서비스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 준비실 제도를 확대하여 사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 경영정보 제공, 기술경영교육 제공, 기술정보 제공 및 이전 예비시장조사,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등 기술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경쟁력 있는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송준일, 2009).

창업자는 사업 초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자원을 배분하고 투입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을 담당한다. 이러한 창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영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창업관련 교육은 청소년 비즈쿨과 창업아카데미, 시니어 창업스쿨 등이 있으며, 정부 무상지원 자금에도 경영지원의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이 있다.

또한 창업 멘토의 역량이 멘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기 창업자 성과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멘토가 적절한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멘토 또한 사업에 대한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지니는 멘토링이 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과정 전반을 지도하는 멘토의 역량(사회적 판단능력)과 멘토의 역할모델 기능이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방혜민·전인오, 2015).

## 4) 창업인프라

정부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기술, 경영지원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정보의 제공, 창업지원인력의 양성 및 공급, 연구기자재 지원등과 같이 창업과정에 필요한 총체적인 창업기반인 창업인프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기간 동안 입주하게 하여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32개 법률, 6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BI) 의존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프라지원, 네트워크 연계지원, 직접지원제도인 세 가지의 보육서비스 모두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입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 지원서비스의 경우 센터의 자원을 흡수하여 기업의 역량을 만들어가지만 네트워크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신생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육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박재성, 2009).

한편 최근에는 서울 역삼동에 창업타운을 조성(TIPS)하여 기술, 경영, 자금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3. 창업의지

창업활동은 우연한 발생이 아닌 계획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왔고, 이러한 창업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Katz and Gartner, 1988). Gartner(1992)는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의지는 특정 목표 또는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사고로서(Sanchez, 2013), 창업의지는 미래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라 할 수 있다(Thompson, 2009). Shapero(1975)가 제시한 창업행동(entrepreneurial event) 모형에서는 개인의 욕구, 실현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행동성향에 기반을 둔 창업의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진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고, 창업가로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Boyd and Vozikis, 1994).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Lee, Kim and Kim, 2013), 지금까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영향, 창업교육, 개인의 성향, 경력환경 등의 요인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Scherer et al., 1989; Ronstadt, 1984; Leazar, 2002).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은 다양한 환경과 배경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각자 다른 동기가 설정이 되고 이는 창업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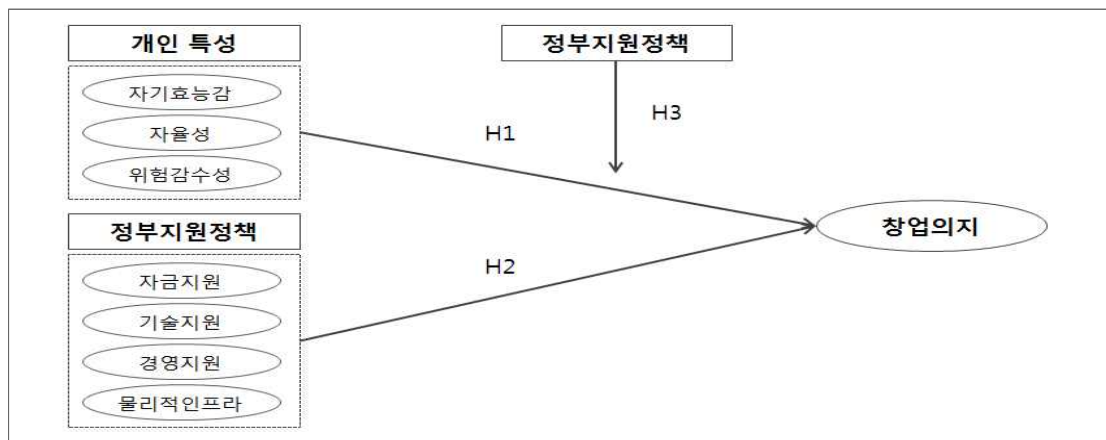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질과 환경적 요인인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개인특성은 자기효능감, 자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요인으로는 정부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정부지원정책으로 자금, 기술, 경영지원, 물리적인프라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함으로써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둬으로써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지원정책이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하여 개별 정부지원정책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 2. 가설의 설정

설정된 연구모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자 개인특성요인(자기효능감, 자율성, 위험감수성)과 정부지원정책(자금, 기술, 경영지원, 물리적인프라)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개별 정부지원정책이 개인특성요인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창업자의 개인특성요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자율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기술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경영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물리적인프라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자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3. 자료수집

창업자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비창업가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자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00부를 배포하고,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 1) 개인특성

자기효능감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이고 기대치에 대한 수준’을 나타낸다(DeWitz and Walsh, 2002). 본 연구에서는 Cox, Mueller and Moss(2002)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어떻게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며, Cox, Mueller and Moss(2002)의 측정방법을 창업분야에 적용하여 측정한 정연우·반성식(2008) 및 김성순(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측정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즉 ‘타인의 의사가 아닌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성향(Spreitzer 1995; Lumpkin and Dress, 1996)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Ryan & Deci의 기본심리 욕구 척도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이명희 외(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등 6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위험감수성은 ‘예측되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Sexton & Bowman, 1986). 창업은 항상 재무적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여파로 인해 창업자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창업자 정신이 바로 위험감수성이다(Brockhaus, 1982; 하규수, 2012). Naman & Slevin(1993)와 유봉호(2013)연구를 바탕으로 3개 측정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한다.

2) 정부지원정책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최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남정민·전병준·박정우 2013). 다수의 정부지원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실제 정부지원 정책과 소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항목을 설정하였다. 송혁준 외(2006), 송준일(2009), 송종호(2011), 이민화 외(2013), 방혜민(2015), 임교순(2015), 이병권(2015)의 연구에 따라 정부지원정책은 자금·기술·경영·창업인프라지원으로 구분하고 자금지원 4개 문항, 기술지원 3개 문항, 경영지원 5개 문항, 창업인프라 4개 문항을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한다.

3) 창업의지

예비창업자의 실제적인 창업활성은 개인의 계획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창업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Kickul, Gundry, Barbosa and Whitcanack(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이용하여 ‘나는 5년 이내 창업할 것이다’와 같은 향후 창업 가능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6개 항목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측정 항목>

측정 변수		측정 항목	선행연구
개인특성	자기효능감	창업 성공 욕구	DeWitz & Walsh(2002)
		자질과 능력	Cox, Mueller & Moss(2002)
		타인보다 우월한 창업능력	정연우·반성식(2008)
	자율성	타인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 다고 느낌	이명희·김아영(2008) 김성환 외(2015)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적음	
		타인이 시키는 대로 수행	
		내 생각과 의견을 표현	
	위험감수성	내 인생은 스스로 결정	Lumpkin & Dress(1996) Naman & Slevin(1993)
		내 생각보다는 타인의 처리방식을 따름	
		새롭고 도전적인 일 선호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위험 감수			
정부지원 정책	자금지원	수익이 큰 프로젝트 선호	송혁준·김이배·오용락(2006) 송종호(2011) 임교순·전인호(2015)
		세액감면	
		창업지원금(무상)	
		운영·정책자금(대출)	
	기술지원	보증지원	송준일(2009) 이민화·김영지(2013) 윤방섭(2014)
		기술지도 지원	
		신제품개발 지원	
	경영지원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R&D 지원	송종호(2011) 송준일(2009)
		창업교육	
		사업아이템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	
	창업인프라	경영 정보 제공	박재성·리철·김재진(2009) 방혜민·전인오(2015) 임교순·전인오(2015)
멘토링 지원			
창업 공간 제공			
창업규제 완화			
창업의지	창업인프라	연구 기자재 지원	Kickul, Gundry, Barbosa & Whitcanack(2009)
		인력 지원	
		취업 선택	
		창업 선호	
		5년 내 창업의도	
		창업의도 없음	
창업 의지 강함			
		미래 창업 의지	

## 5. 연구 방법

본 연구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각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고, 각 측정변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0.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의 통계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 IV. 연구방법분석 및 결론



## [참고문헌]

- 김성순 (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환·복경수·박재춘 (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제5호, pp.15-26
- 김영환·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5권제3호, pp.347-376.
- 남정민·전병준·박정우 (2013),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종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제5호, pp.27-43
- 반성식·배근우·장성희 (2013),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제6호, pp.2655-2677
- 박재성·리철·김재진(2009), “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1권제2호, pp.105-118.
- 방혜민·전인오 (2015), “멘토의 역량과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 초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5호, pp.444-454
- 송중호 (2011),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준일 (2009),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혁준·김이배·오용락 (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8권제4호, pp.65-79
- 유봉호 (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제10호, pp.2669-2690.
- 유봉호 (2015),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위험감수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7권제2호, pp.87-105.
- 윤방섭 (2004), “창업의지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제2호, pp.89-110
- 육창환·전인오 (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국내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제10호, pp.661-676.
- 이명희·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제4호, pp.157-174.
- 이민화·김영지 (2013),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 제35권제3호, pp.294-324.
- 이병권·전인오 (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9권제6호, pp.213-230.
- 이장우·이성훈 (2004), “벤처기업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pp.229-274.
- 이종욱 (2013),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소기업연구, 제35권제3호, pp.269-296.
- 임교순·전인오 (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1호, pp.422-432.
- 전인오 (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제11호, pp.103-114.
- 정연우·반성식 (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3권제1호, p.45-67.
- 창업진흥원 (2013),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 하규수 (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 구, 제19권 제5호, pp59-74
- 한관섭 (2012), “신생 창업동기와 성장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 한정희·김정호 (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제6호, pp.2777-279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egley, T.M. and Boyd, D.P.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 Boyd, N G. and Vozikis, G.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63-63.
- Brockhaus R. H.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Brockhaus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Sexton. D and Vesper K.(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 Slevin D.P. and Covin J. G. (1990),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 Structure-How to get your act together,” *Sloan Management Journal*, 43-53.
- Cox, L.W., Mueller, S.L. and Moss, S.E. (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229-245.
- DeWitz, S.J. and Walsh, W.B. (2002),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3), 315-326.
- Feldman D. C. and Bolino M. C. (2000),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53-67.
- Gasse Y. (1982), “Elabor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Sexton. D.L and Vesper K H..(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57-71.
- Gartner, W.B. (1989), “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4), 47-68.
- Gist, M. E. and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Greenberger, D.B. and Sexton, D.L. (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07-127.
- Gnyawali, D.R. and Fogel, D.S.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Hackman J. R. and Oldman G. R. (1980), “Work Redesign, Reading,” MA: Addison-Wesley.
- Herbert R. F. and Link A. N. (1982), “ The Entrepreneur,”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 Kauffman Report (2012), 「Entrepreneurial Activity Declines as Jobs Rise」
- Katz, J.A. and Gartner, W.B.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emelgor B. H., D’souzaR. and Henley G. (2011), “ The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ntry and Firm Performance of First Career and Second Career Entrepreneurs as Mediated by

- Prior Knowledge,” *Souther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9-45.
- Kickul, J., Gundry, L.K., Barbosa, S.D. and Whitcanack, L. (2009), “Intuition Versus Analysis? Testing Differential Models of Cognitive Style on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439-453.
- Koh H. C. (1996), “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 Study of Hong Kong MBA Student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12-25.
- Kreuger N.F. and Brazeal, D.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euger N. F. , Reilly M. D. and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 No.5, pp.411-432.
- Leazar, E. P. (2002),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 N.9109.
- Lumpkin, G.T. and Dess, G.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38.
- Naman J. L. and Slevin D. P. (1993), “Entrepreneurship and the Concept of Fit : A Model and Empirical Tes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137-153.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Free Press, NY
- Reynolds, P. D. (1992).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Concepts and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47-70.
- Ronstadt, R. (1984), “Ex-entrepreneurs and the decision to start an entrepreneurial career”,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437-460), Massachusetts, MA: Babson College.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ánchez, J. C. (2013), “The Impact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447-465.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and Wiebe, F.A. (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1.
- Sexton, D. and Bowman N. (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29-140.
- Sexton, D. and Bowman N. B. (1986), “Validation of Personality Index :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40-51.
- Shapero, A. (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Nov), 83-88.
- Shapero, A.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Sexton. D and Vesper K.(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72-90.
- Smith E. S., Kot G. E. and Leat M. (2003), “Differentiating Work Autonomy Facets in a Non-Western Context,”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24(6), 709-731.
- Sp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Stitkin S. B. and Weingart L. R. (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Making Behavior: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Risk Propen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1573-1592.

- Thompson, E. R. (2009), "Individual entrepreneurial intent: Construct clar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metr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669-694.
- Timmons J and Spinelli S. (2007),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7th Ed. McGraw-Hill/Irwin, Boston, MA.
- Wood, R. and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